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3일 23시 55분

주윤이의 재미있는 "하우스 콘서트"~****(주윤*유현맘)

2015.08.17 조회수 121 등록자 박선미

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낮았다가 높다가 그 소리가 실감났어요.

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내가 알던 소리가 아니고 아주 멋진 하프 소리 같았어요.

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잠이 올 정도로 포근하고 편안했어요.

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께서 같이 연주하는 합주가 너무 멋졌어요.

게을리 연습하면 ~악기로 멋진 소리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것을

느꼈어요.

하우스 콘서트에 잘 간 것 같았고

간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.-주윤이의 느낀점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

피아노.jpg (344 hit/ 201.9 KB) ↓



미리보기

글쓰기

목록

이전글

국립발레단 -돈키호테- 관람후기 목포꿈다락 송현...

다음글

기특한 유현이의 일기-재미있는 '하우스 콘서트'...

MokPo - Si
Web Contents

